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리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날개 휘젓던 공간밖에 믿을 게 없어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게 없어  
 천장에 매달려 잠자는 파리는 슬프다  
 추락하다 잠이 깨면 곧 비행할 포즈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이착륙하는 파리  
 구더기를 본 사람은 알리라  
 왜 파리가 높은 곳에서 잠드는가를

㉡저 사내는 내가 덮고 자는 공간을 깔고 잔다  
 지구의 밑부분에 집이 매달리는 시간  
 나는 바닥에 엎드려 자는데  
 저 사내는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잔다  
 발 붙이고 사는 땅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는 듯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저 사내는 슬프다  
 어떤 날은 저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 거꾸로 쭈그러 앉아 전화를 걸기도 한다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어디 또 있나 보다  
 -함민복, 「오래된 잠버릇」-

(나)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A]

나는 나의 참회(懺悔)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滿)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 왔던가. [B]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懺悔錄)을 써야 한다. [B]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告白)을 했던가. [C]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C]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내온다 [D]

-윤동주, 「참회록」-

(다)

예로부터 산을 좋아하여 석가산(石假山)을 만든 사람은 많다.

간혹 폭포를 만든 사람도 있었지만, 으레 가산 뒤편의 땅을 높이고 가산 앞으로 물이 흐르도록 폭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 놓으면 사면이 모두 못물에 둘러싸여 ㉠폭포의 맑은 물이 혼탁한 못물과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비해 나의 것은 가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나와 폭포를 이루니 더욱 기이하다. 고금에 이러한 것은 없었을 듯하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하고 쉬운 것으로 어려운 것을 시도하는 법. 이 못은 둘레가 겨우 몇 길이고 깊이도 몇 자 되지 않는다. 산은 높이가 다섯 자이고 둘레가 일곱 자, 폭포는 두 자 남짓이고 나무는 네댓 치이다. ㉢그런 데도 봉우리가 험준하고 골짜기가 그윽하며 쏟아지는 폭포와 다투어 흐르는 물줄기가 진짜를 방불케 한다. 몇 길 땅 안에 큰 바다를 갈무리하고, 몇 자의 돌에다가 봉래산과 방장산을 축소해 넣었으니, ㉣정건이나 왕유처럼 솜씨 좋은 화가들이 정성을 쏟고 기교를 다해 그런 그림이라도 여기에 비하면 만분의 일도 담아내지 못할 것이다.

아,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 결국은 천지도 모두 가짜를 합한 것이고 사람의 육신과 사지도 모두 가짜를 합한 것이니, 큰 것과 작은 것, 진짜와 가짜를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바를 취할 뿐이다. 게다가 세상 만물에는 입에는 맞지만 눈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눈에는 맞지만 귀에는 맞지 않은 것은 있지 않은가? 이 샘물은 달고 시원하여 우리 집과 이웃에서 아침저녁 여기에 의지하고 있으니 입에 맞는다 하겠다. 이 샘물이 기암괴석과 소나무, 전나무 사이를 흘러 몇 자 높이에서 곧바로 떨어지는데, 마치 한 가닥 물줄기가 병풍 같은 푸른 산을 갈라놓은 듯 흰하다. 아침저녁으로 보아도 지겹지 않으니, 눈에 맞는다 하겠다. 고요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베개를 높이 베고 그 소리를 듣노라면 공후나 축을 연주하는 맑은 소리처럼 울려 퍼지니, 귀에 맞는다 하겠다.

나는 집이 가난하고 벼슬이 초라하여 곱게 단장한 여인네가 눈을 즐겁게 하는 일도 없고, 달고 기름진 음식이 입을 즐겁게 하는 일도 없으며, 피리나 거문고같은 악기가 귀를 즐겁게 하는 일도 없다. 그저 이 샘물 하나에 의지하여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니, 참으로 담박하면서도 운치가 있다.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초라한 나를 비웃겠지만 나는 즐거우니 이 즐거움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다.  
 -채수, 「석가산폭포기」-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일상적인 통념에 대하여 인식의 반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통사 구조의 반복을 사용하여 인물의 감정이 드러나거나 인물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 있다.
- ⑤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석가산폭포기」에서는 자연을 모방한 석가산을 통해 풍류와 흥취를 느끼는 데에서 소박함과 청렴하고 올곧은 삶이 드러난다. 특히, 석가산이 자연을 모방했다는 사실과 자연과 석가산의 관계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 ① 자신이 만족스럽게 여기는 ‘석가산’이나 ‘천지’와 ‘인간의 육신과 사지’ 모두 ‘가짜를 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요소들의 불완전함을 묘사하며 겸양의 분위기가 드러나는군.
- ② ‘몇 길 땅 안에 큰 바다를 갈무리’하고 ‘몇 자의 돌에다가 봉래산과 방장산을 축소해 넣’은 데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비유’한다는 이치가 드러나는군.
- ③ ‘석가산’에 ‘샘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아침저녁으로 보아도 지겹지 않’다고 하는 데서 ‘나’가 느끼는 풍류와 자연의 흥취가 드러나는군.
- ④ ‘여인네’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 ‘달고 기름진 음식’이 ‘즐겁게 하는 일’, ‘피리나 거문고같은 악기’가 ‘즐겁게 하는 일’이 없던 점에서 ‘나’의 청렴하고 올곧은 삶이 드러나는군.
- ⑤ ‘세상이 호걸들이 ‘초라한 나’를 ‘비웃’을지라도 ‘이 즐거움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서 ‘나’가 즐기는 석가산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24. [A]~[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에서 화자의 성찰에 대한 간접함이 드러나고 있다.
- ② [A]의 내 얼굴과 [D]의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화자 자신을 나타내며 화자의 운명을 드러낸다.
- ③ [B]에서 화자가 참회록을 쓰는 모습에서 과거의 회한과 과거 자신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고 있다.
- ④ [A]에서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남아 있는 자신의 얼굴을 왕조의 유물이라 표현한 데서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 ⑤ [A]에서 드러난 자기 인식은 [B]에서 참회록을 쓰는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산 뒤편의 땅을 높이고 가산 앞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자신의 석가산은 가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나고 있는 데에서 자신의 석가산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석가산이 작은 존재일지라도 실제 자연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자신의 석가산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숨겨 좋은 화가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자신의 석가산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석가산에서 느낄 수 있는 입에 맞는 즐거움, 눈에 맞는 즐거움, 귀에 맞는 즐거움의 세 가지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게는 ㉡가 천장에 매달려 자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고, 반대로 ㉡에게는 ㉠이 천장에 매달려 자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은 같은 공간에 대한 서로의 공간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 ② ㉠은 ㉡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늦게 거꾸로 쭈그러 전화를 걸고 있다는 데에서 밤늦게까지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의 ㉡에 대한 연민이 드러난다.
- ③ ㉡는 ㉠이 활주로 없이 바로 이착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준비 과정도 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불안한 ㉡에 대한 연민이 드러난다.
- ④ ㉠은 ㉡가 발 붙이고 사는 땅과 중력밖에 믿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결국 ㉠의 시점에서 천장에 등을 붙이고 잠드는 것으로 보이는 ㉡에 대한 연민이 드러난다.
- ⑤ ㉡는 ㉠이 높은 곳에 잠드는지에 대한 이유를 ㉠의 구더기 시절부터 고려하며 ㉠이 구더기 시절부터 가진 동경 때문에 ㉠이 높은 곳에 잠든다고 생각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을 낯설게 하는 ‘낯설게 하기’ 기법이 사용된 (가)에서 사내와 파리는 서로에 대한 다른 관점을 드러내는 데서 상호 간의 이해가 존재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존재의 상대적 의미와 가치를 드러낸다. 또한, 파리의 시점을 통해 현대에 발생한 인간 소외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나)에서 화자는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는 데서 자신의 욕된 지난날에 대한 책임 의식과 철저한 실존적 자아 성찰이 드러난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끊임없는 고뇌를 통해 화자의 높은 정신적 성숙이 드러난다.

- ① (가)의 ‘파리’의 날개 휘젓던 공간과 날개의 길밖에 믿을 것이 없는 특성은, 파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위태롭게 살아가기에 ‘날개’에 대한 이상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② (나)의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남아 있는 ‘내 얼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통해 화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 자기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③ (가)의 ‘저 사내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어디 있나 보다’은 ‘파리’의 시점을 통해 현대 인간 소외의 문제를, (나)의 ‘참회록’은 화자의 자신의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군.
- ④ (가)의 ‘파리’는 낯설게 하기 기법을 통하여 세상에 대한 시인의 통찰을, (나)의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은 화자의 자신의 지난 삶의 기간에 대한 철저한 실존적 자아 성찰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파리’와 ‘저 사내’의 관점을 통해 서로는 다른 존재이지만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존재의 상대적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했음을, (나)의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는 현재의 화자가 과거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참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